

계 21:12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문이 있었습니다. 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문이 있었습니다.

마 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12 절, 13 절 그리고 21 절은 새 예루살렘의 문들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거룩한 성 안에는 벽 뿐만 아니라 열두 문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벽은 분별과 보호를 위한 것이며 문들은 교통과 입구를 위한 것이다. 만약 그곳에 문들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문들이 있는 벽이 필요하다. 문은 단절되어있는 벽 안에서 열린 곳이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벽을 건축해야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절단된 면이 필요하다. 때때로 우리는 한 귀한 형제가 문이 없는 강한 벽같다고 느낀다. 어느 누구도 그를 통해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영적인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들이 더욱 영적으로 될 수록, 그들은 더욱 어느 사람도 주님께 데려올 수 없다. 그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입구가 없는 벽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절단된 면이 필요하며 그를 통해 다른이들이 들어 올 수 있게 해야된다.

반면에 많은 귀한 그리스도인들은 벽이 전혀 없다. 그들은 너무 열려있다. 또한 영적인 이들은 열린 곳이 없이 벽만 있다. 이 모두 큰 문제이다. 우리는 벽이 필요하며 또한 열두 문들과 네 방면으로 나아있는 세계의 문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들이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떤 지방교회들은 문이 없는 벽들만 있어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만약 누군가 구원받고 교회에 오고자 한다면, 마치 그들이 그 영적인 사람들을 넘어가야해서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마치 그들이 거룩해지고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은 교회들이 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원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의 벽은 사방의 합당한 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느 방향에서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이다. 우리는 우리가 분파나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입구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네 방면으로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열두 문들이 있는가?

모든 방향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던지 간에, 그들에게 입구가 있어야 한다. 그 문들은 동쪽으로 극동으로, 남쪽에 아프리카와 남미로, 서쪽에 유럽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또한 북쪽에 러시아에 볼셰비키 쪽으로도 열려 있어야 한다. 입구는 모든 방향을 향해 있다. 입구는 또한 모든 계급의 사람들 즉, 그들이 의사이든 놀음꾼이든 열려 있다. 열두 문들은 네 방향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오도록 열려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모습을 가진 분별하는 벽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분별은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하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입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삼일 하나님이 네 방면의 문들이신 것 같이 우리의 벽들도 열린 곳이 있도록 절단될 필요가 있다. 열린 곳을 갖도록 절단 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삼일 하나님의 의해서 이다. 이러한 절단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그 영에 의하여 성취된다. 누가복음 15 장을 고려해보면 얼마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희생하셨으며, 얼마나 그 영은 어두운 마음을 계속 비추시고 계시고, 얼마나 아버지는 잃어버린 죄인을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지 볼 수 있다. 우리가 기꺼이 열린 곳을 갖기 위하여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단하기를 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 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그 곳으로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A General Sketch of the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Christ and the Church - Part 4: 계시록 ch. 44, pp. 473-474*)

호 7:8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합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계 21: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너무 영적이거나 우리가 분별되어있고, 거룩하고, 세상적이지 않다고 자랑해서는 안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해도,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뿌려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너무 온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저는 저의 영성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구원 받고 교회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문들은 열릴 것이다. 우리의 영성이 과쇄되어질 때, 약하고 죄많은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문들과 입구가 생길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력으로 높은 벽을 넘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벽을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입구가 없는 통자의 벽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매우 쉽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벽이 전혀 없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우리는 입구가 없는 벽을 짓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열망이 전혀 없다. 우리는 또한 벽 안에 남아서 다른 사람과 분리 되어지기를 더 좋아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다. 호세아 7:8 절은,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전병은 한면은 탔으나 다른 한면은 익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거듭하여 뒤집어져야 한다. 우리는 벽을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방면으로 열려진 문을 만들기 위하여 절단되고 잘려져야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벽을 더 높게 지어야하고 또 벽을 지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을 만들기 위하여 부서져야 한다.

네 방면의 세계의 문들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생활을 균형잡아 준다. 네 면의 세계의 문들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의 중심이 세워져야한다. 또 그 땅에 한 코너에만 건축이 된다면, 네 방면에 문들이 존재할 수 없다. 각 네 방면의 세계의 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 중심을 먼저 잡고 모든 방면으로 균형을 잡아 문들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매우 좋은 교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마도 “한 코너”의 교회생활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방면으로 열려진 문들이 아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균형잡히지 않았으며 구석으로 치우쳐서 한쪽의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방면의 세계의 문들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방면에서 들어오기 쉽게 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합당하게 균형잡히고 온전히 중심이 맞아야 한다.

하나님의 건축물로서의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방면과 모든 방향으로 볼 때 이것은 100% 균형잡혀있다. 이것은 어느 한 면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다른 면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 우리가 사는 모든 도시에 있는 지방교회의 표현은 지리적이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는 안되며 어느 한 두 면에 입구가 없어서도 안된다. 교회는 모든 방면에서 매우 균형잡혀야 하며 모든 방면에서 그 외향이 똑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간증의 중심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되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방면의 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책에 메세지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연구에 있지 않다.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강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열두 문이 우리를 균형잡아주고 하나님의 경륜에 중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를 어떤 균형잡히지 못한 위치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방면에서 중심과 균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 바란다. (*A General Sketch of the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Christ and the Church - Part 4: Revelation, ch. 44, pp. 474-476*)

창. 17:5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기 때문이다.

아브람 - 높아진 아버지. (창. 17:5, note 1)

아브라함 -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하나님께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높아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필요하다. (비교 창 1:28, 창 9:1) 그러므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그의 인격이 바뀐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영적인 체험에서 참되게 이름이 바뀌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고 (갈 2:20),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이다 (고전 15:10).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많은 사람을 낳으실 수 있으시다. (창. 17:5, note 2)

이제 우리는 이름이 바뀔을 보자. 17 장 5 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람은 ‘높여진 아비’를 뜻하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를 뜻한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비였지만 많은 무리의 아비, 곧 열국의 아비는 아니었다. 그러나 17 장 5 절에서 그의 이름은 높여진 아비에서 많은 무리의 아비로 바뀐다. 히브리어로 아브람이란 이름은 영어의 에이-비-알-엠(a-b-r-m)으로 대표되는 네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알파벳 에이치(h)가 추가되어 구성된다. 이것은 넷 더하기 하나를 의미한다. 넷은 피조물의 숫자이고 하나는 창조자의 숫자이다. 그러므로 네 개의 손가락과 한 개의 엄지손가락이 완전한 손을 구성하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할 때 완전함이 된다. 넷 더하기 하나는 책임의 숫자인 다섯이 된다. 숫자 「4」인 우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여전히 숫자 「1」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책임을 지는 숫자 「5」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한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더해진 것이었다. 창세기 17 장 이전에 아브라함은 다만 더해진 하나님이 없는 아브람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17 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안에 더해짐으로써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했다. 한 개의 특별한 글자가 네 글자에 더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더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케 하시는 요소이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짐이 필요하다. 이것이 완전함이다.

인격은 그 사람의 이름의 실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의 인격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의 원래의 이름은 ‘높여진 아비’를 의미한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높여진 아비가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비이며, 높여진 개인이 아니라 확장된 사람, 곧 그의 확장인 많은 무리를 이룬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무리의 사람이 필요하셨으며 이를 위해서 그분에게는 많은 아비가 필요하셨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이런 종류의 영성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들은 메마르고 씨를 낳지 않는 개인주의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성을 추구함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씨를 낳음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름, 곧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한다. 높여진 아비가 많은 무리의 아비로 바뀌어야 한다. 높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무리를 낳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성을 추구하는 자아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확장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종류의 자아까지도 끝나야 한다. (*창세기 라이프 스테디* 메세지. 47, pp. 633-634)

고후 12: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고전 9:22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고후. 12:15).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의 부와 생명을 희생하는 느낌을 준다. 소비하는 것은 바울의 소유를 소비하는 것이다. 다 소비하는 것은 그 자신을 소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쓰고자 하는 영이 있고 우리 자신을 다 소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해마다 많은 증가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증가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자신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높은 증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전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화단에게는 구호가 있었다. “모든 서양인들은 죽여라. 미스터 코벳씨만 빼고.” 이것은 그 선교사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중국인들을 위하여 허비하였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그를 찾아갈 때면 그는 무언가를 그에게 줬다. 저녁 식사나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는 어떤 것도 보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가 무엇인가가 부족할 때면 사람들은 그가 부족하게 된 것은 자신들에게 모두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허비하고 허비했다. 그는 주님께 절대적이었다. 그는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을 얻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말했다.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고전. 9:22). 어떤 이들은 그 성격이 너무나도 강하여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어렵다. 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개성 이라고는 없는 것 같다. 그는 단순히 하나의 목재와 같다. 그는 어떤 모양으로든 잘려 질 수 있다. 그의 성격이 주님께 완전히 다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부드럽고 굽혀질 수 있으며 유연하고 모든 상황에 적응력이 있다. 1954년 나의 대만에서의 훈련에서, 나는 봉사자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성격과 기질은 연고와 같아서 모든 표면에 바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와 반대로 어떤 형제와 자매들은 강한 돌과 같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돌들은 다른 이들을 때리는 때에만 적합하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좋게 느끼며, 강한 돌은 블레셋 거인을 죽이는데 유용하다고 말한다. (삼상 17:49),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처량한 것이다. 다른 면으로 우리는 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적용이 가능하며 우리가 주어진 어떠한 환경에서도 좋아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꺾인 부분에서나 구석에서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열매 맺는 것과 사람들을 돌보는데 장애가 된다. 우리는 아직 너무도 천연적이다. 어떤 이들은 매사에 느리다. 그들이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지 느리다. 불이 낮는데도 집에 물을 뿌리지 않고 어떤 물을 뿌릴 까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찰한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자신을 합리화 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며 어떤 것과 서둘러서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윗치만 니 형제님은 하나님이 달려갔다는 구절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갔다. (눅 15:20).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얻으시는데는 빠르시다. 어떤 이들은 너무도 빠르다. 그들은 빨리 열매를 맺는다. 그들은 서둘러서 열매를 맺으므로 남아 있는 열매가 없다. 나는 어떤 이들을 책망하거나 폭로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빛비취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천연적인 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의 긍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요 15: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2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이 손질하십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형편없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여, 이것을 잘라 주소서. 이것을 잘라내실 자유를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규율을 세우지 않는다. 나 자신의 양심에 따르면 나는 담배를 피우고서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규율을 세운 적이 없다. 우리는 규율을 신뢰하지도 않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가장 잘 기념한다고 믿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쇼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생명이 넘쳐흘러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하며 분발시켜서 복음 전파의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 그보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진지한 많은 귀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여, 저는 쇼팽에 있어서 당신과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저도 사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 때 저는 다만 당신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삽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주여, 저는 짧은 머리든지 긴 머리든지, 턱수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께만 관심이 있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구원받고 당신으로 변화되고 있는 저는 살아 있는 동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의 사랑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당신께서 모두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치기하신 사람들이 될 것이다.

잘린 가지에는 항상 열매를 맺는 신선하고 새로우며 부드러운 순이 있을 것이다.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오직 새 순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 순’이 있어야 한다. 많은 신발을 소유한 자매들은 “주님, 이 문제에 관하여 가지를 쳐 주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를 치시도록 허락해 드리면 그들은 신선함과 새로움과 부드러움이 가득한 새로운 ‘새 순’을 갖게 되고 좋은 포도송이를 맺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죄악된 것들을 처리해야 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죄가 되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그러나 죄가 되지는 않지만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려고 애쓸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 주님은 이러한 열심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뜻을 세우거나 결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처리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제단 위에 두고 “주여, 저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저를 자르시며, 제게 빛을 비추소서. 저를 폭로하시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 저의 참된 상태를 보여 주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폭로와 빛 비춤에 따라 주님께 철저한 처리를 받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교회 생활과 열매 맺음과 어린양을 먹이는 것으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죽이기 때문이다. 교회 생활은 좋은 것들을 죽이는 생활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기질을 죽이는 생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것과 어린 양을 먹이는 것도 ‘죽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질을 죽이는 ‘칼들’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통과한 후에는 타고난 기질을 철저히 처리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통성이 생길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용통성이 필요하다. 용통성이 없는 어머니는 좋은 자녀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어머니의 아이들은 모두 용통성이 없는 어머니 때문에 손상될 것이다. 우리의 친척들이나 사촌들이나 학교 친구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용통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불편하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갈망에 달려 있다. 용통성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용통성이 있어야 하고,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하며, 결코 너무 바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말할 시간을 내야 한다.... 바쁘지 아니면 시간을 낼 수 있는지는 우리의 기질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철저한 처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을 낼 수 있고, 용통성이 있으며, 기질이 온전히 다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 4:32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
요 4:3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거듭났다면, 주님의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특별히 부담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담은 주님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청소년들 까지도 필요하다. 나는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청소년들도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담이 있길 희망한다. 나의 관측에 의하면, 우리는 많은 수의 10 살, 11 살, 12 살 자매들이 있지만 이들을 보살피는 청소년 자매들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젊은 자매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후에, 그들은 “주님, 이러한 부담을 가지길 원합니다. 나는 중학교 자매들을 보살피기 위해 저를 바칩니다. 이것은 저의 봉사입니다. 나는 그들을 돌보며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몇몇의 청소년들이 이렇다면 주님의 존재와 함께 할 것이고 은혜를 볼 것이다.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러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이든 자매들은 더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보살필수 있는 부담을 가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봉사에 임명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몸의 머리이신 주님께 가야하며, 부담을 가지기 위해 그분께 처리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 처리되고 부담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을 관심하기를 배워야 한다.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중 많은 이들은 남들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영적인 자람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교회생활은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과 얽히길 원한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정한 음식의 맛을 통하여 이러한 관심을 설명 할 수 있다.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차이나 타운에 가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일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음식”(요 4:31-34)이 되어야 한다. 몇몇의 나이가 더 있는 청소년 자매들은 “교회의 모든 10-15 살 어린 여자들은 나의 음식이다. 나는 이러한 범위에게 까지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천연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안된다. 우리는 “주여 부담을 주소서. 나는 천연적이고 사회적인 방법이 아닌 생명의 길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온전히 참여되고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걸 바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구원되고, 생명안에서 자라며, 성숙해지는것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야한다.

우리는 그러면 특정한 인물을 향해 부담을 가질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간직하고, 그들을 위해 한명 한명 기도해야 한다. 청소년 자매는 “주님,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녀가 구원을 받을때까지 저는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라도 그녀를 구원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주님 이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대가 이 사람을 위한 진정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대를 위해 그녀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 할 수도 있다. 점차적으로 자매는 그녀가 구원받는걸 볼 수도 있다. 이후에 그녀는”주님, 이 어린이가 구원을 받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족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 한번, 자매는 그녀의 기도에 주님이 대답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이 든 세대도 부담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관심하고 사람들과 얽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교회의 많은 이들을 우리의 어깨로 품고, 우리의 가슴으로 포용해야 한다. (출애굽기 28:9-12, 15-21, 29).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들이 넘어지면, 우리는 슬퍼하며 그들이 일어나면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부담으로 지녀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이 부담을 가져야 한다. (The normal way of fruit-bearing..., ch.1,pp.15-18)